

박후임 목사의 눈에 비친 땅과 노동 이야기¹⁾

임혜난, 유효민 (부산장신대원생)

여성목회자 탐방 이틀째 날이다.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흐리고 추웠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박후임 목사님은 전북 진안에 계셨다. 시골로 한참 들어가서 박후임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준목님을 만났다. 목사님은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무로 만든 담장벽으로 마당이 보였다. 나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중앙엔 작은 비닐하우스 창고가 있고 개가 보였다.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마루를 거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전통적인 한국 문양의 나무문에 창호지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목사님 내외분은 작고 아담한 방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 집에 온 듯한 푸근함을 느끼게 했다.

박 목사님은 맛있는 오미자차를 내오셨다. 우리는 오미자차를 마시며 작은 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이 글은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동아리 “여성목회연구회” 회원들의 현장탐방으로 지난호 송희순 목사에게 이어 두번째이다.

1. 목사님의 살아오신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10남매 속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형제가 너무 많은 까닭에 주로 교회에 가서 놀라고 하셨지요.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습니다. 동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풍금도 있는...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고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교사를 할 때부터 곤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이상한 신학적 질문들을 나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아이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눈에 성경의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나에게는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해야겠다는 바람이 내 안에 싹이 트면서 신학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꿈만 가지고는 아니었고, 내 삶을 전부 내어드리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경험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한)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나를 만나고, 밖의 세상을 만나는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구요. 사고의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경험은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고, 신앙의 혼돈도 일어났지만, 신학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학 1년, 처음 맞이하는 여름수련회에서 신학의 길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씨름을 하였습니다. 수련회에서 확신을 얻지 못하면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자연과의 대화'에서 나는 말 못하는 무생물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학연구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한

국역사, 철학, 경제사, 민중신학, 해방신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서 속의 예수님을 온 존재로 만났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나로 하여금 초등학교때 부터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서부제일교회(합동측)에서 유치부 꼬맹이들로부터 청년부까지 섬기면서 지낼 수 있게 하였죠. 이곳에서 미감아들을 만나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온 몸으로 겪고, 그리 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를 고백했지요.

신학을 졸업한 것은 1987년. 나환자정착촌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하나 고민할 때, 성수삼일교회에 평신도로 나가면서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은 없었지만, 여성안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생각에 ‘예장여성안수실천동지회’를 선배 언니들과 함께 만들고 활동을 했지요. 여교역자회를 통해서 ‘여성신학’을 공부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거듭나고, 기독여민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독여민회를 통해서 생기게 된 새터교회에서 4월부터 일을 하게 되면서 손은하 목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과 미래의 비전은 어떠하신지요?

전북 진안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1999년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서였습니다. 1989년부터 손은하 목사님과 또 손 목사님이 영등포산 업선교회로 가신(94년) 후에는 고혜신 전도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 10년쯤 되던 해, 선순화 목사님의 죽음(당시 49세)을 만났지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나머지 그의 죽음 앞에서 나를 살펴보게 되었지요. 언니

가 늘 “제발 쉬어라”하셨던 말씀을 그냥 지나쳤었는데, 언니의 죽음을 만나면서 쉬어야겠다는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새터교회에서는 실무자들이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가졌는데 목회자였던 나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뭐 힘든 것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기에.

섬의 기간 1년을 통해서 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교회 밖으로 나오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난 그동안 기독교문화의 테두리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가지면서 평신도의 모습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때 나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될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그동안 일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난 나 자신의 성찰을 위해 ‘동광원’에서 개최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에 복귀를 하면서 그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관심으로 상담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깊이 가져갈 때에 나에게 죽어가는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반대 운동 때에 개신교에서 참석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을 받아 내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만금갯벌까지 걸으면서 자연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부터 내 안에는 생명, 생태, 살림에로 마음이 가고 그쪽 분야의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새터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함께 일했던 두 분 여전도사님을 안수받게 하여 인수인계하고, 이곳 진안

으로 내려 왔습니다. 관심의 전환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오게 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는 배우자도 만나 함께 내려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땅을 만나서, 땅에 대해서 알고, 땅으로부터 배워서, 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집 개는 비가 오면 토합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이런 현상을 ‘날긋이’를 한다고 하지요. 이미 비가 오기 전에 온 몸으로 비가 올 것을 알고 토하기에 ‘날긋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지요. 사실 사람은, 아니 나는 동물들보다 자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동안 너무 머리로만 살아와서 나의 몸은 자연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땅과 친해지는 기간이 약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땅을 만나서 땅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땅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땅이 나를 목회할 것입니다. 도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나 또한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고 이러한 나를 땅이 바꾸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가톨릭의 여러 다양한 피정의 집들과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힘들어 하는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영혼의 휴식은 노동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땅을 밟지 않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영혼의 안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기반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요.

3.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해 나의 생각과 경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성서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교리적이고 외형 중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지요.

개인적으로 이웃종교에 관심이 많고, 함께 만나게 되면서 나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자 이웃종교와 이웃교회와의 만남 주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요. 물론 교회의 회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 하였지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비롯해서 다른 일들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직 자체가 전부가 아니며, 교회는 본래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사직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라는 옷에 얽매이지 않으니 목회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옷은 참된 자신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지 목사라는 직분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라는 옷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할만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4. 과학이 발달하고 복잡한 세대에 대해 목사님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으신지요?

나는 가르침이란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연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과학이 발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상이 진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 목사님의 목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목회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4년,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는 목회를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1994년 담임을 맡으면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란 일 자체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목회의 대상은 교인만이 아닙니다. 목회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돌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쪽에서 퍼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쉽게 기대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 낙망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인 그 사람의 힘으로 나 자신이 다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나를 목회한다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 시골에 와서 느낀 점은 어떠한 것 입니까?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몸으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릴 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노동을 임금과 교환해 버렸고 노동의 신성함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처음 감자를 재배해 보았습니다. 한 박스를 캐면서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 감자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감자가 한 상자에 2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일 년 노동의 결과가 2만원 밖에 되지 않다니요. 바로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시골마을을, 농촌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골로 내려와서 가족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족에 대해 소홀히 했던 점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심 있는 분들이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귀농이 잘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공부할 때는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신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관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다 보면 목회의 방향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달란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농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의 달란트가 있으면 귀농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8. 지금의 현실과 생명사랑이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름을 지을 줄만 알았지 동물들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협력이 안 된 것입니다. 조화는 협력입니다. 협력은 상대방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나의 이름만 존재할 뿐입니다. 農